

## 테크 약세에도 순환매 유입 기대

4월 4% 반등했던恒生지수는 5월 전월대비 2.3% 하락한 25,182pt를 기록했다. 올해 연초 대비 지수는 1.8% 하락했다. 홍콩과 중국의 자동차 및 인터넷 종목들의 부진이 지수에 압박을 가했다. 시장 변동성으로 단기 거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일평균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16% 증가한 HK\$2,930억을 기록했다.

恒生부동산지수는 전월 대비 1% 상승했다. 4월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강조된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의도, 미국 금리가 올해 4분기 전까지 동결될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이 부동산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중국해외개발(00688 HK), 화룬부동산(01109 HK)이 9~18% 상승한 반면, 신흥기부동산(00016 HK)은 1월~4월의 주가 상승 이후 3% 하락했다.

恒生금융지수는 1% 하락했다. 올해 4분기 미국/홍콩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홍콩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도 또 하나의 긍정요인이다. HSB 홀딩스(00005 HK), 중국은행홍콩(02388 HK) 등의 대형주가 4~8% 상승했다. 일부 차익실현으로 중국 은행들은 약세를 보였다. 건설은행(00939 HK)/공상은행(01398 HK)이 3~3.3% 하락했다.

恒生상공업지수도 전월대비 3.3% 조정받았다. 중국 자동차 섹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매 데이터로 매도 압력을 받았다. 지리자동차(00175 HK)는 전월 대비 18% 하락했다. 메이투안디엔핑(03690 HK)은 투자자들의 1Q26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12% 조정을 받았다.

중동 군사 갈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홍콩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5월 홍콩 증시 부진은 지수 내 기술주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. 글로벌 자금은 다양한 테크 하드웨어 종목 선택지가 있는 대만과 한국 시장으로 이동했다. 다만 대만과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차익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고, 이는 6월 홍콩 증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오는 6월 16~17일 예정된 미연준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, 향후 미국 금리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홍콩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 당사의 2026년恒生지수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는 27,212pt다. 최근 커버리지 개시 이후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비야디와 알리바바그룹홀딩스를 편입하고 NIO-SW와 선저우인터내셔널을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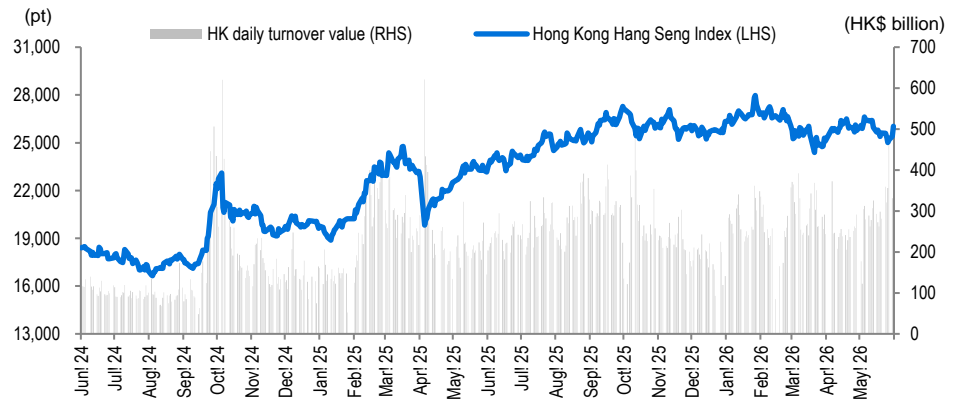
주: 발간일 2026.06.04

5월 발표 매크로 지표(홍콩/중국)

발표일	지표	수치
5월 6일	중국 4월 RatingDog 종합 PMI	53.1
5월 6일	중국 4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	52.1
5월 6일	홍콩 3월 소매판매액	12.8%
5월 11일	중국 4월 PPI	2.8%
5월 11일	중국 4월 CPI	1.2%
5월 9일	중국 4월 수출	2.5%
5월 18일	중국 4월 소매판매	0.2%
5월 18일	중국 4월 산업생산	4.1%
5월 31일	중국 5월 제조업 PMI	50.0%
5월 31일	중국 5월 종합 PMI	50.5%
5월 19일	홍콩 3월 실업률, 3개월 평균	3.7%
5월 21일	홍콩 3월 종합 CPI	1.7%
5월 28일	홍콩 4월 수출	42.9%

자료: Bloomberg, Yuanta Investment Consulting

항생지수 수익률



자료: Bloomberg, Yuanta Investment Consulting